

# 이슈

2

2019년 12월 3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제3219호



올 시즌 K리그를 빛낸 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K리그1과 K리그2 부문별 수상자와 최우수선수(MVP) 김보경(뿔족 왼쪽에서 4번째) 등 수상자 전원이 2일 서울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어워즈 2019'에서 트로피를 품에 안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중원 기자 won@donga.com

## K리그 어워즈 2019 감독상 | 전북 7번째 우승 이끈 모라이스

# “K리그가 이렇게 힘든 무대인줄은 몰랐다”

32.67점을 획득... 최고의 감독으로 “프린트와 선수들의 노력이 깃든상” 무리뉴가 보낸 축하 영상편지 공개

각본 없는 드라마로 품은 우승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언어낸 감독상까지...

전북 현대의 통산 7번째 정상 등극을 이끈 조세 모라이스 감독(54·포르투갈)이 2일 서울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어워즈 2019'에서 12개 구단 감독과 선수, 미디어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고 감독상 트로피를 품었다. 투표수 환산점수 100점 만점 가운데 32.67점을 획득해 포항 스틸러스 김기동 감독(29.78점)과 FC서울 최용수 감독(23.84점), 대구FC 안드레 감독(13.71점)을 모두 제쳤다. 막판까지 우승 경쟁을 펼쳤던 울산 현대 김도훈 감독은 올 시즌 대상 시상식 후보 제외 기준(5경기 이상 출장정지 또는 6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넘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부여 받아 후보에서 제외됐다.

앞서 전북을 K리그1 최정상으로 이끈 최강희 감독(60)이 올해 중국 슈퍼리그 상하이 선화로 떠나면서 후임으로 부임한 모라이스 감독은 한국이라는 낯선 무



전북 현대의 통산 7번째 우승을 이끈 조세 모라이스 감독이 2일 서울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어워즈 2019'에서 감독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김중원 기자

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도력을 발휘했다. 백미는 역시 시상식 전날 열린 최종전이었다. 전북이 홈에서 강원FC를 1-0으로 꺾고, 울산이 포항과 홈경기에서 1-4로 패하면서 모라이스 감독은 극적인 우승을 맛봤다.

아직 전날의 여운이 가시지 않았다는 모라이스 감독은 “이 감독상은 혼자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함께 우승을 만든 구단 프린트와 선수들의 노력이 깃든 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



전북 조세 모라이스 감독이 공개한 토트넘 조세 무리뉴 감독의 영상 축하 메시지. 고훈준 기자

다. 이어 “올해 처음 접한 K리그가 이렇게 힘든 무대인지는 몰랐다. 사실 전북을 이끌고 우승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다. 그래도 마지막 순간 정상을 밟아 행복했다. 내년에도 전북은 물론 K리그가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모라이스 감독은 이날 사전 인터뷰에서 재미난 뒷이야기 하나를 공개했다. 최근 토트넘(잉글랜드)의 지휘봉을 잡은 조세 무리뉴 감독(66·포르투갈)으로부터 받은 영상 편지였다. 화면 속에서 무리뉴 감독은 밝은 미소로 모라이스

K리그1 수상(투표수 환산점수)	부문	K리그2 수상(투표수 환산점수)
김보경(울산·42.03점)	MVP	이동준(부산·40.44점)
모라이스(전북·32.67점)	감독상	박진섭(광주·84.22점)
김지현(강원·55.59점)	영플레이어상	-
조현우(대구·49.41점)	베스트11 GK	윤광국(광주·67.78점)
이영(전북·15.06점)	베스트11 DF	이승민(부산·15.15점)
홍정호(전북·13.53점)	-	이은성(광주·17.72점)
홍철(수원·12.31점)	-	김문환(부산·15.15점)
김태현(울산·12.02점)	-	남순주(에버턴·13.39점)
세정(대구·20.98점)	베스트11 MF	이동준(부산·17.17점)
김보경(울산·18.29점)	-	호윤준(부산·16.14점)
문선민(전북·15.85점)	-	알렉산(안양·8.56점)
원필손(포항·11.53점)	-	김상현(안양·7.75점)
주나익(울산·35.90점)	베스트11 FW	조규성(안양·24.06점)
타카트(수원·34.33점)	-	차승수(FC·20.11점)

\* 선수별 점수는 투표수 환산점수(표지선별 후보 전체 100점)로 환산

감독에게 “우승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같은 포르투갈 출신인 모라이스 감독과 무리뉴 감독은 2003년 FC포르투(포르투갈)부터 인터밀란(이탈리아),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첼시(잉글랜드)까지 사령탑과 수석코치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처럼 오랫동안 연을 맺어온 옛 동지의 응원을 받은 덕분일까. 이날 모라이스 감독은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올 시즌 최고의 사령탑으로 등극하며 잊지 못할 하루를 보냈다.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

### 프로축구연맹 제9차 이사회

- 1 아산 시민구단 승인
- 2 청주 리그 가입 부결
- 3 5회 경고 1경기 아웃
- 4 FA이적 보상금 폐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서울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9차 이사회를 열고 K리그 각 영역별 규정과 대회요강 등을 개정했다. 연맹 이사회는 아산무궁화축구단의 시민구단 전환 및 2020시즌 K리그 참가 안전을 승인했지만 가칭 청주시티FC의 K리그 가입 신청 안전은 부결했다.

#### ●아산의 시민구단 전환 승인으로 K리그2 10구단 유지

이사회는 아산의 2020년 시민구단 전환 및 K리그 참가 안전을 승인했다. 아산은 2020시즌부터 시민구단으로 K리그2에서 경쟁을 이어간다. 올해까지는 사실상 군림이었다. 아산의 시민구단 전환에 따른 선수 지원은 나머지 K리그 21개 구단이 지정한 보호선수에서 제외된 인원 중 무상임대 또는 이적료 감면의 형태로 팀당 1명씩, 총 5명 한도로 영입할 수 있다. 보호선수는 K리그1 구단은 20명, K리그2 구단은 16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아산은 K리그2 구단과의 계약이 종료된 선수를 영입할 경우 각 팀당 1명, 총 5명 한도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창단 의지를 드러낸 청주시티FC의 리그 가입신청 안전은 부결됐다. 이사회는 청주 구단측이 제출한 창단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재정확보 계획이 미흡해 안정적인, 지속적인 구단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고누적 완화·FA제도 개선

올 시즌까지 선수가 3회 경고 누적마다 1경기 출전정지를 부과했다. 하지만 우수 선수의 경기출전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최초 5회 경고 누적 시 1경기 출전정지, 그 다음은 3회 경고누적 시 1경기 출전정지, 이후는 2회 경고 누적마다 1경기 출전정지를 부과한다. 단, 10회 이상의 경고가 누적될 경우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원 소속 구단과의 계약이 만료된 자유계약선수(FA)가 타 구단에 입단할 경우 원 소속 구단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2021년부터 완전 폐지된다. 또한 해외클럽에 이적료를 지급하고 영입한 외국인선수가 계약 만료 후 K리그 내 다른 구단에 입단하면 이적료가 발생하도록 한 현 규정을 2020년부터 삭제키로 했다. K리그 최저 기본급을 현행 20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신인선수 자유선발 등급을 S등급(계약기간 5년·계약금 최고 1억 5000만 원·연봉 기본급 3600만 원)과 일반 등급(계약기간 1~5년·연 기본급 2400~3600만 원)으로 조정했다. 내년부터는 천연잔디와 인조잔디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잔디'에도 K리그 경기가 가능해졌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 김지현 영플레이어상, 강원 구단 사상 첫 수상

연령별 대표 경력 없이 10골·1도움 김지현 “내가 이 자리에 선 건 기적”

올 시즌 K리그1 최고의 영건은 김지현(23·강원FC)이었다.

김지현은 2일 서울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하나원큐 K리그 어워즈 2019'에서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다. 감독 6표, 주장 8표, 미디어 52표를 얻어 환산점수 55.59점으로 영예를 안았다.

이는 강원 구단 최초의 수상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K리그는 프로 첫 시즌을 맞이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신인상'을 수여했지만 2013년부터 범위를 23세 이하까지 확대한 '영플레이어상'을 주고 있다. 나이뿐 아니라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 ▲17경기 이상 출전 ▲데뷔 3년 이하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올해로 프로 2년차를 맞이한 김지현은 그야말로 '신데렐라 스토리'를 썼다. 변변한 연령별 대표팀 경력이 없었음에도 올 시즌 정규리그 27경기에서 10골·1도움을

터트렸다. 쟁쟁한 외국인 공격수들이 주름잡는 K리그에서 국내 선수의 두 자릿수 득점은 흔치 않다.

라운드 MVP 2회에 선정될 정도로 인상적인 김지현의 경기력에 강원도 활짝 웃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은 버거웠지만 파이널 라운드 그룹A(1~6위) 진입하며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다.

올해 강원은 팔색조 전략을 바탕으로 한 전방위적인 공격을 시도하는 김병수 감독의 “병수 불”로 스포트라이트 받았는데, 그 중심에는 최전방부터 측면까지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김지현이 있었다. 김 감독은 시즌 중 틈날 때마다 “(김)지현이가 (영

플레이어상을) 받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9월 무릎 부상으로 김지현이 시즌을 조기 마감했음에도 실제로 그를 범접할 만한 도래는 없었다. 0점대 방어율을 뽐낸 전북 현대 수문장 송병근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지만 ‘김지현 임팩트’를 넘어서지 못했다. 송병근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후보에 올랐으나 끝내 수상에 실패했다.

새 시즌, 또 한 번의 날갯짓을 위해 묵묵히 재할에 전념해온 김지현은 “천운을 타고났다.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줄 몰랐다. 부족한 실력의 내가 프로에 정착하고 이 자리에 선 것이 기적”이라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K리그 축제 빛낸 유상철 감독의 밝은 미소

“때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지만 팬들과의 일치 약속 꼭 지키겠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인천 유나이티드 유상철 감독(48)은 다시 한 번 “마지막 약속을 지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 심해질 때가 있지만, 자신을 위해



유상철 인천 감독 2일 '하나원큐 K리그 어워즈 2019'에서 수상자들만큼 관심을 안은 이는 유상철 감독이었다. 최근 체지방

4기 투병 사실을 스스로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낸 유 감독은 이날 동료 사령관들은 물론 선수들 그리고 축구계 관계자들로부터 뜨거운 응원을 받았다. 행사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난 유 감독은 “현재 항암치료를 2차까지 받은 상태다. 사실 가끔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또 (무언가를)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팬들과 일치 약속을 한 만큼 포기할 수 없다. 올겨울 치료를 잘 받아 빨리 완쾌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

짐했다.

이날 시상식장에서도 유 감독을 향한 응원은 계속됐다. 전북 현대 조세 모라이스 감독은 사전 인터뷰 중인 유 감독을 직접 찾아 K리그1 잔류 축하와 함께 패우 지원 메시지를 건넸다. 또 한국스포츠발전기자 협회는 올해의 베스트 포토상으로 유 감독이 지난달 24일 상무와 홈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둔 뒤 코칭스태프와 일사안고 기뻐하는 장면을 선정하기도 했다. 무대로 올라온 유 감독은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고훈준 기자